

한선 프리미엄 리포트

Hansun Premium Report

주 제 : 북한 해외인력 송출의 문제점과 대책
발제자 :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
일 시 : 2016년 3월 31일 오전 7시 30분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2,000원으로 내 마음같은 '정책후원' 하기

☒ 문자 한 통 #7079-4545

215회 정책세미나 주요 내용

< 요약 >

☞ 3월 31일 정책세미나에서는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을 연사로 초청해 북한 해외인력 송출의 문제점과 대책을 주제로 논의했습니다.

■ 북한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는 북한 해외 노동자들이 2000년대 이후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등 수십여 개의 국가에 송출되어 일하고 있다. 이제 세계 어느 지역에서나 북한 노동자들을 볼 수 있을 정도다. 북한 내부에 있는 북한 주민에게는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기는 어렵지만, 해외에 나와 있는 탈북자나 해외 노동자, 유학생들은 우리가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있다. 하나는 이들이 임금으로 벌어들인 2~3억 달러가 북한 정권에 들어가 핵이나 무기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북한 노동자들의 송출 및 송금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들이 발전된 사회를 통해 보고 들은 정보가 파견을 마치고 2~3년 후 북한에 들어가 북한에 외부 정보를 넣을 수 있는 중요한 창구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 북한에서 해외에 나가는 것은 상당한 특권이다. 해외 파견은 달러를 벌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에게는 큰 로망이다. 해외에 나간 노동자들이 버는 금액의 70%는 북한 당국이 챙겨 가고, 숙박료와 식비로 10~20%가 추가 공제되어 실제 노동자들이 받는 금액은 임금

의 10~20%인 50~100달러 수준이다. 50~100달러를 3년 정도 모으면 2,000달러 정도로 '해외 노동자로 나갈 동기가 충분하다'라는 것이 지금 북한주민들의 판단이다. 또 젊은이들에게는 감옥 같이 답답한 북한을 벗어날 수 있다는 점도 추가적인 동기가 된다.

■ 노동자들의 해외 파견은 강제적이지 않지만 파견 시 여권은 회수 당한다. 북한 밖에 나와 있지만 간헐서 집단생활을 하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잠자리도 정상적이지 않고, 식사 역시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업체 내에 자체 구급 시설이 있는 곳도 있다. 근로조건 역시 위험하며 열악하다. 노동자들의 평균 근무시간은 10~12시간 정도고, 여기에 4~6시간의 추가근무를 한다. 이들은 중노동을 하다 다쳐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 사고가 발생해도 외면당하고, 보상금조차 착복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은 참아낼 수 있지만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은 참기 어렵다고 한다. 업체에서 주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북한 당국의 가로채기가 많기 때문이다. 결국 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졌으며 어디 호소할 데가 없다.

■ 미 행정부는 북한 인력들이 해외로 나오는 것을 막으려 한다. 하지만 10만여 명의 북한 사람들이 해외에 나와 경험하는 것이 북한 변화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달러가 북한으로 유입돼 핵과 무기로 전환되는 것은 분명히 막아야 한다. 하지만 북한 노동자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 달러의 흐름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통제한다면 해결 할 수 있다. 지금도 대북제재로 인해 많은 나라에서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에 대한 비자가 발급되지 않아 이들은 중국과 러시아로 몰리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UN제재가 제대로 작동 되지 않는 나라이다.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과 러시아로 모인다면 북한 당국의 달러 유입을 제재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 지금 해외에 나와 있는 대다수의 북한 노동자들은 평양출신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다. 이들이 북한에 돌아가면 상당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 때문에 북한사회의 변화를 위해서는 해외 북한 노동자들이 여러 정보를 받아들이고 세상에 대해 좀 더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에게 외부세계와 자본주의를 알게 하고 생각의 변화를 준다면 그들이 북한으로 돌아가 주민들에게 바깥세상을 알 수 있게 하는 창구 역할을 할 것이다.

■ 북한 해외 파견 근로자, 北정권 달러 수입원 vs 외부 정보 유입자 : 소규모 인원 파견국까지 포함 시 40여개 국 10만여 명 넘어

-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은 세계에서 가장 열악하다. 북한 주민들은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북한 당국의 지휘와 통제 하에 살아가고 있다. 이런 북한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는 북한 해외 노동자들이 2000년대 이후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등 수십여 개의 국가에 등장하고 있다. 이제 세계 어느 지역에서나 북한 노동자들을 볼 수 있다.

- 북한 내부에서 발생하는 노동착취 등의 사건은 우리나라가 도움을 주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UN이나 국제기구가 여러 압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북한 내부의 사건은 파악하기 힘들고 실질적인 도움도 되지 않는 실정이다. 하지만 해외에 나와 있는 탈북자나 해외 노동자, 유학생들은 우리가 직접적인 도움이 가능하다. 북한이 인력을 송출 하고 있는 국가는 20여개 국가로 확인되었고, 소규모 인원 파견국까지 포함한다면 40여개 국민

-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장 많은 북한 노동자들이 나와 있는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이다.
-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있다. 하나는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수가 약 10만 명 정도로 이들이 송금하는 액수가 약 2~3억 달러에 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돈이 북한 정권으로 들어가 핵이나 무기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북한 노동자들의 송금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사람들은 북한에서 통제를 가한다 해도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은 막을 수 없다. 이들이 다시 2~3년 후 북한에 들어가기 때문에 외부 정보를 북한에 넣을 수 있는 중요한 창구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 북한에서 해외에 나가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다. 북한 주민들이 여권을 쉽게 발급받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외에 나가는 인원들은 공개모집이 아닌 당에 속한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충당을 해야 한다. 자리가 쉽게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리가 나더라도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몰린다. 북한 주민들에게는 해외에 나가는 것이 큰 로망이며 달러를 벌 수 있기 때문이다.
 - 해외에 나간 노동자들이 버는 금액의 70%는 북한 당국이 챙겨 가고, 숙박료와 식비로 10~20%가 추가 공제되어 실제 노동자들은 임금의 10~20%인 50~100달러 정도를 받는다. 이 액수는 해외에선 적은 금액이지만 북한에 들어오면 환율차이 때문에 큰돈이 된다. 50~100달러를 3년 정도 모으면 2,000달러 정도로 ‘해외 노동자로 나갈 동기가 충분하다’라는 것이 지금 북한주민들의 판단이다. 또 젊은이들에게는 감옥 같이 답답한 북한을 벗어날 수 있다는 점도 추가적인 동기가 된다.
 - 북한 노동자들은 근로계약서 자체를 알지 못한다. 노동계약과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다는 점은 북한이 노동자를 파견하는 모든 국가에서 직종, 직급, 소속기관 등에 불문하고 예외 없이 적용된다. 오직 그들이 아는 정보는 북한보다는 나은 경제적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뿐이다.

■ 해외 노동자의 자유 박탈당한 ‘북한 밖의 북한’ 생활

: 여권 회수 당한 채 14~18시간의 중노동 시달려...임금 착복에도 호소 어려워

- 해외 노동자들의 출신성분(토대)은 절대 나쁘지 않다. 오히려 다수의 해외 노동자들은 평양 출신들로 대부분이 건설 노동자로 나간다. 예외적으로 벌목공도 있지만, 이는 주로 낮은 성분 출신들이다. 해외 노동자들이 파견되는 나라들의 공통점은 국제노동시장에서 노동 불량국가들이다. 노동시스템이 국제적인 표준에 적합하지 않고 폐쇄적이며 노동 규율이 불량스러운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이 노동자를 파견할 수 있다.
- 노동자들의 해외 파견은 강제적이지 않지만 나가면서 여권을 회수 당한다. 신분증이 없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북한에서와 비슷한 생활을 한다. 북한 밖에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 안에 있는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집단생활을 하며 자유가 없다. 잠자리도 정상적이지 않고, 식사 역시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다. 업체 내에 자체 구급 시설이 있는 곳도 있다. 근로조건 역시 위험하며 열악하다. 노동자들의 평균 근무시간은 10~12시간 정도이고, 여기에 4~6시간의 추가근무를 한다. 성과급은 없으며 별도의 추

가 급여가 없는 근로이다. 탈북 노동자는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국가 명절이 올 때까지 일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들은 중노동을 하다 다쳐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 사고가 발생해도 외면당하거나 심지어 사망자 앞으로 나온 보상금조차 착복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은 참아낼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이 참기 어려워하는 것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업체에서 주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북한 당국에서 가로채기를 많이 하기 때문이다. 결국 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졌으며 어디 호소할 데도 없다. 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 밀주 등과 같은 불법적인 일을 한다.

■ 북한 유입 달러 흐름 철저히 통제 하되 파견 근로자 막아선 안 돼

: 파견 해당국, 근로계약서 체결 확인 등 노동권 보호 모니터링 필요

- 북한이 해외로 인력을 송출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미국과 한국에서 UN대북제재 목록에 북한노동자 파견 문제를 추가하려 했으나 넣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선 자체적으로 대북 제재안에 이 사항을 넣었다. 북한에서 해외로 송출하는 인력을 받아주거나 또는 관계를 갖는 기업들을 제재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 미국 행정부는 북한 인력들이 해외로 나오는 것을 막으려 한다. 하지만 10만 여명의 북한 사람들이 해외에 나와 경험하는 것이 북한 변화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더 많은 북한 인력들이 해외로 나와야 한다. 단 근로계약서 체결을 분명히 해야 한다. 개인이 노동을 통해 벌어들인 돈은 개인이 받도록 해야 하고, 북한 가족에게 직접 송금 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 노동자들은 본인의 월급이 얼마인지 모른다. 카타르의 경우 우리나라의 요구로 북한 파견 노동자의 노동권리와 관련한 사항을 카타르 정부에서 관리하도록 만들었다. 당국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했고 불법적으로 착취가 일어난 곳의 노동자 100여 명을 추방하는 조치를 내렸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북한 대사관에서 카타르 정부에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겠다고 하고 실제 개인통장으로 입금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입금된 노동자 급여를 다시 빼앗는 방법을 사용했다. 노동자들이 처음부터 돈을 못 받는 것과 받았다가 빼앗기는 것에 대한 인식은 확연히 다르다.

- 달러가 북한으로 유입돼 핵과 무기로 전환되는 것은 분명히 막아야 한다. 하지만 북한 노동자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 달러의 흐름을 철저히 통제하고 관리한다면 해결 할 수 있다. 지금도 대북제재로 인해 많은 나라에서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이 비자를 받을 수 없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노동자들은 중국과 러시아로 몰리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UN제재가 제대로 작동 되지 않는 나라이다.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과 러시아로 모인다면 북한 당국의 달러 유입을 제재하는데 제약조건이 될 것이다.

- 해외에 파견된 북한 관리자의 경우, 북한 사람이라 믿기 어려울 만큼 생각이 유연했다. 평양 출신이라 하지만 평양에서 만난 북한 사람들과는 차별되는 종자(種子)다. 해외

물을 먹으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다. 지금 해외에 나와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평양출신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다. 그들은 대학도 나온 지식인들이다. 이들이 북한에 돌아가면 상당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 때문에 북한사회의 변화를 위해서는 해외 북한 노동자들이 여러 정보를 받아들이고 세상에 대해 좀 더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우리가 북한 내부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1차는 사람을 통해서이다. 북한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핵개발 시설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하지만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에게 외부세계와 자본주의를 알게 하고 생각의 변화를 준다면 그들이 북한으로 돌아가 주민들에게 바깥세상을 알 수 있게 하는 창구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북한 주민들은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215회 정책세미나 질의응답

질문1 북한으로 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착취를 당하지 않는지?

답변 북한에 나와 있는 해외 노동자가 공식적으로 송금하는 것은 UN제재 때문에 불가능하다. 노동자들은 직접 돈을 갖고 들어가지 송금하지 않는다. 또 지금 북한에서 달러 사용은 환전하지 않고 시장에서 직접 사용하고 있다. 남광건설과 같은 북한 군부에 속해 있는 기업이 달러를 벌여가는 방식은 차단되어야 한다.

질문2 북한 당국에 유입되는 달러가 줄면 해외 인력을 중단시킬 우려는 없는지?

답변 당국에 들어가는 달러가 줄어들면 해외 인력을 줄일지 여부를 판단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계속 늘리고, 더 많은 나라와 은밀하게 송출을 타진하고 있다. 김정은 보다 해외로 나가는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기구의 담당자들의 입장이 더 중요하다. 그들의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해서도 해외 노동자 파견을 더 늘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줄어드는 달러와 관리 계층의 이해구조 사이에 접점이 생기게 된다. 그 지점에서 해외 노동자 파견이 이루어 질 것이다.

질문3 UN제재 발동으로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지? 또 해외 노동자들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답변 대북제재가 결정되었고 여러 국가들의 제재가 예정됨에 따라 북한으로 들어가는 달러가 차단되고 압박을 받을 것이다. 북한은 세계에 퍼져 있던 노동자들을 대북제재에 적극적이지 않은 중국과 러시아로 인력들을 모으려 할 것이다. 결국 제재만으로 북한 노동자 송출을 다 막기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역발상을 해야 한다. 제3국에 북한 노동자들이 분포되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긍정적임을 유념해야 한다.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노동자들은 처음에 집단으로 나와 소속 기업에서 관리를 받는다. 하지만 1~2년이 넘으면 실질적으로 관리가 안 된다. 관리자인 정보원들도 부패해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과의 접근이 쉽다. 이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달러다.

질문4 해외 노동자들과 유학생들을 더 좋은 나라에서 일하고 공부하게 할 순 없는지? 한국과 미국이 ‘북한 노동자를 받지 말라’는 요청에 해당 나라들이 항의한 일이 없는지? 또 이에 대한 북한 노동자들의 반감은 없는지?

답변 북한 노동자들과 유학생들이 더 좋은 나라로 간다면 우리에게도 좋지만 북한 당국이 보내지 않는다. 또 발전된 나라들에선 불법적인 일을 할 수 없다. 루마니아와 체코 등 북한 노동자를 추방했던 나라들은 UN 결정에 따른 것이다. 그들은 UN의 결정으로 북한 인력의 송출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말했다. 하지만 미국 행정부나 우리나라의 요청엔 자국정책에 개입하는 인상을 받고 있어서 반발한다. 북한 노동자들은 외교적인 결정에 관심이 없다. 그들은 ‘누가 돈을 더 많이 주냐’, ‘일을 누가 시켜주냐’가 관심일 뿐이다. 그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경로를 막는다면 반감을 갖겠지만 아직까지 한국에 반감은 없다.

질문5 연사께서 북한 해외 노동자들을 만나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았는지?

답변 원칙적으로 남한 사람이 북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하지만 인권적인 차원에서 간단한 만남과 같은 것은 위법이 아니다. 러시아에선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면 같이 밥을 먹는 정도는 할 수 있다.

※ 이 자료가 도움 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한 통 꼭~ 한선을 지지해주세요.
(한 통 2,000원)